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8월 22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21주일(8월 22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 6,60 L-69)



영은 생명을 준다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주님은 돌아서 가려는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요한 6,63)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봅니다. 그림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오는 영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오심을 나타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60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6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62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65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66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68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69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 6,66)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듣고 해석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봅시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 6,67.68)

혹 주님의 곁을 떠나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실제로 주님의 곁을 떠난 적은 없었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고 투덜거리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이웃을 겉으로만 보고 대하고 깊고 진실한 내면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영(spirit)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들여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던 세상이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서로 믿고 친밀해지는 만큼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친밀한 만큼 그만큼 서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말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내어주는 사랑을 배웁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